

김신혜측 “보험금 노리고 살해?...무죄 근거 제시할 것”

‘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1년 만에 재개

“수면제, 당일 안 먹어도 검출 가능...적극적으로 재판 임할 것”
수익자, 개인 아닌 온 가족...보험금 노렸다는 범행 동기도 반박

“난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무죄를 밝히겠습니다.”

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간 복역중인 김신혜(여·46)씨가 2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 심리로 열린 재심(再審) 법정에서 1년 6개월만에 섰다.

이날 법정에서 나온 김씨는 마스크를 쓴 채 평온하고 담담한 모습으로 억울함을 주장했다.

김씨와 그의 법률대리인은 김씨의 무죄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주장해 재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열린 재판은 재심의 공판준비기일로 김씨가 직접 법정에서 나온 것은 지난 2021년 11월에 진행된 재판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4월 증거조사 방식과 범의, 추가 증인신문 범위 등을 협의하기 위해 한차례 재판이 진행됐지만 김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뒤 김씨의 심신장애를 이유로 지난해 10월 공판 절차를 중지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출석해 “표면적으로는 김씨의 심신장애상태로 공판이 정지됐지만, 사실상은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던 것이다”면서 “무죄에 대한 김씨의 의지가 충만하고, 변호인의 조력 의지도 그와 같다”며 무죄 다짐 의지를 다졌다.

김씨도 법정에서 직접 “심신장애상태가 아니며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면서 “누명을 쓰고, 재판에 들어갔는데 심신 상의 이유로 재판을 기피했었지만, 이제는 억울했던 일, 수사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왜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는데 쓰인 것으로 알려진 수면유도제의 증거능력 여부에 대해 검찰과 김씨 측이 각각 입증계획을 내놨다.

검찰 측은 수면유도제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하고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김씨 측은 “김씨의 아버지가 치통으로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해 왔다면 사건 당일 복용하지 않아도 피해자 몸에서 검출될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사례를 확인

했다”고 반박했다.

또 “김씨 아버지가 이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한 것에 대해 가족들의 증언과 처방해준 약사에 대한 증언이 과거 방송에 방영됐다”면서 당시 증언한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거나 방송을 촬영한 담당자를 범정에 소환할 계획도 밝혔다.

범행 동기로 알려진 보험금에 대해서도 김씨 측은 반박했다. 보험 수익자가 김씨 혼자 아닌 ‘상속인’, 즉 온 가족으로 돼 있었다는 점에서 김씨의 범행동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씨는 “동생이 죽은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하며 지난 2015년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경찰이 영상 없이 압수수색하고 현장증거를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들어 갑갑 수사라고 판단해 청구를 인용했고, 2019년 3월 재심이 시작됐다.

김씨의 재판은 그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기도 하고,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하면서 연기돼 왔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친부 살해 혐의로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가 2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5·18 때 부상 계엄군 - 치료해 준 의사 ‘43년만의 만남’

진상조사위서 증언한 계엄군
“은인 만나고 싶다” 요청 성사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을 입은 계엄군과 그를 병원에 숨겨주고 치료해준 의사가 43년만에 한 자리에서 만났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이었던 20사단 박운수(당시 상병)씨와 의사 정영일씨가 24일 광주지법 복구인동의 한 병원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은 진상조사위가 조사 과정에서 박씨가 5·18 당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증언을 내놓으면서 시작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들이 교차 확인되면서 정씨의 신원도 추가로 드러나자, 박

씨가 “그분들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해 온 것이다.

박씨는 1980년 5월 21일 20사단 61연대 대대장 당직병이였으며, 대대장 지프 차량을 타고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했다. 광주를거기트를 지나 광주산단에 진입할 무렵 인근에서 시위중이던 시민들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큰 부상을 입었다. 시민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박씨를 둘러쌌는데, 이 때 시민군들은 박씨를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치료를 시켜주자고 제안하고 리어카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했다. 정씨는 병원 위층에 있는 자택에 박씨를 숨겨 주고 응급치료를 해 줬으며, 향쟁이 끝난 28일 박씨가 무사히 부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복을 입혀 보내줬다.

진상조사위는 20사단 전부상보 기록에는 ‘5월 21일 오전 9시 30분에 박운수씨가 광주를거기트에서 행방불명되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당시 대대

장의 1996년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기록에도 같은 내용이 실렸다고 전했다.

박씨는 “4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생명의 은인을 찾아뵙게 돼 죄송하다”며 “그때의 부상으로 한쪽 청각을 잃어버렸지만, 광주를 원망하기보다는 나를 구해준 광주시민들에게 감사하고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선대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번 만남은 적극적으로 조사위의 진상규명 조사에 협조해주신 두 분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계엄군들이 마음을 열고 증언과 제보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박씨를 리어카에 태워 병원으로 옮겨 준 시민군 등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채용 비위·논문 대필 등 혐의 조선대 교수 ‘혐의 없음’

경찰이 채용비위,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던 조선대 교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발전기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불구

속 입건했던 조선대 A교수 ‘불송치’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발전기금 등 대가를 요구한 혐의로 입건됐고, 수사 도중 연구비 횡령·논문대필 등 추가 범죄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참고인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벌여 왔으나 각종 비위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증거 불충분 또는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한편 A교수가 부당채용한 당사자로 지목된 조선대 B교수(전임교원)는 지난해 11월 대학 제자들을 상대로 작품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입시학원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징용 배상금 약정 내용증명 보낸 건 맞지만 피해자의 뜻을 유족에 알리는 정당한 절차”

강제동원시민모임 입장 밝혀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시민모임)이 ‘피해자에게 배상금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내용증명을 피해자 유족에게 보냈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지자 ‘피해자의 뜻을 유족에게 알리는 정당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민모임은 24일 보도자료로 ‘징용 판결금 중 5126만원 달러’ 지원단체, 내용증명 보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맞지만 이는 공익적 가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대리인은 유족들에게 고인의 유지와 약정 내용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약정 내용을 전화로 설명했지만 유족들이 금시조문이라고 이야기 해 피해 당사자인 고인의 뜻을 알리기 위해 약정서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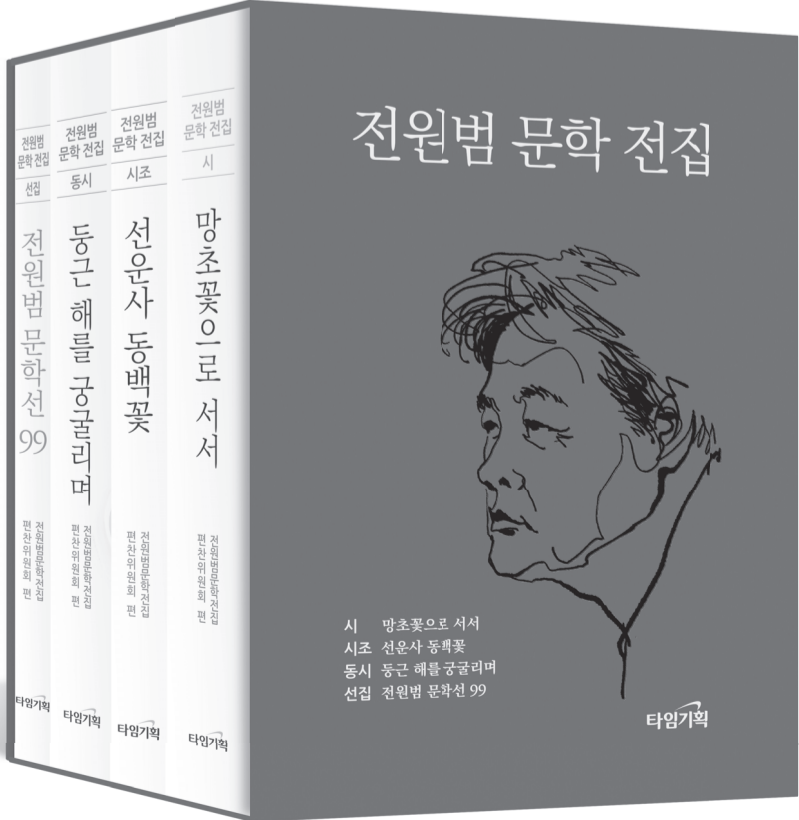
또 제 3자변제안을 반대하면서 유족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한-일간 외교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 모든 것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피해 당사자들도 이런 취지에 힘입어 소송에 나섰고 약정 체결에 동의했던 만큼, 그 마무리도 공익에 부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시민모임의 판단이다.

시민모임은 “피해자인 원고 본인의 유지가 존중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하며 고인의 뜻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유족들에게 설명하는 건 소송대리인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면서 “다만 약정 이행 수용 여부는 유족이 결정할 일이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동근해를 궁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꽤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

